



“저는 그분의 종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며 구주라는 것을 간증합니다.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”

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
십이사도 정원회

“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”, 리아호나, 2005년 5월호, 102쪽에서 발췌.